

“신문 독서논술로 아이들 창의력 쑥쑥”

BIZ & PEOPLE

| 와이즈교육 황규동 대표

세스넷→와이즈교육 개명...창의교육 새 지평
신문·교구 활용한 창의력 교육프로그램 돌풍

“신문 교재로 활용...아이들 역사·문화에 흥미
재미 위주 교육...문제해결능력 향상에 도움”

영어회화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가 모델로 활동했던 세스(CBS)영어를 기억할 것이다. 정철, 민병철, 오성식 영어에 이어 우리나라 영어 회화 테이프 교재를 평정했던 세스 영어테이프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콘셉트와 반복학습으로 쉬운 영어에 목말라 하던 왕초보들에게 한 줄기 생수가 됐다. 세스영어로 대표되던 세스넷은 최근 와이즈교육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세스넷이 어린이 독서논술 시장으로 시선을 돌렸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와이즈위클리’라는 어린이 독서논술신문을 새롭게 발행하고 있다. 신문과 교구를 활용해 어린이 창의력 교육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중심에는 세스영어의 신화를 일군 와이즈교육 황규동(49) 대표가 있다. 서울 등촌동의 와이즈교육 사옥에서 만난 황 대표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린이 창의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세스영어가 나온 것이 1998년이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mp3 플레이어까지 빠르게 보급되면서 영어 테이프는 사양 산업이 되었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했고, 고민 끝에 어린이 창의력을 위한 교구재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처음에는 세계적인 완구업체인 레고의 교육분야 한국 대리점 사업을 했다고 한다. 레고의 교육용 블록 교구재를 수입·판매하다가 2008년부터 독립해 국산화에 나섰다. 황 대표는 “레고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교육적 효과가 뛰어난 교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15개국에 와이즈교육의 교구를 수출하고 있다”고 했다. 와이즈교육은 블록교구를 활용한 창의력 교육프로그램인 ‘와이즈클럽’에 이어 지난해 어린이 독서논술 교재인 ‘와이즈위클리’를 선보였다.

-‘와이즈 위클리’는 신문형식의 독서논술교재라고 하던데.

“신문을 아이들 교육의 교재로 활용하는 NIE(Newspapers in Education)의 역사는 길다. 하지만 어린이 독서논술교육을 위해 신문



“논술교육이 창의적인 아이를 만듭니다.” 세스영어로 우리나라 영어회화 교육계의 신화를 창조한 와이즈교육의 황규동 대표가 국내 최초로 신문형식의 어린이 논술교재인 ‘와이즈위클리’를 발간하며 논술교육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와이즈위클리’를 소개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황 대표.

임종원 기자 won@donga.com 트위터 @beanjun

을 제작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이다.”

게 학습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독서논술교재로서의 신문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

“신문형식의 교재는 다양한 정보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재미있

-독서논술교육은 왜 중요한가.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서’와 ‘글쓰기’다. 기업에서도 요즘은 ‘창의적인 인물’을 뽑는 추세다. 자신이 창의적인 사람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는 많은 책을 읽음과 동시에 자신의 생각을 글과 말에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수능능력시험에서 자연계 유일의 만점자가 서울대 정시 면접에서 불합격한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와이즈위클리’는 어떻게 제작하나.

“10여 명의 각 분야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이 콘텐츠를 만든다. 각 코너별로 주제를 전달하고, 1차 완성된 기사를 편집회의를 거쳐 가공한다. 일주일에 한 번, 주간지 형태로 세 권의 신문형 교재가 나온다. 1단계(유치원~초등1), 2단계(초등2~3), 3단계(초등4~6)로 나뉜다. 전문교사가 직접 방문 교육을 진행한다.”

-방문교육에서 가장 중시하는 부분은.

“교사들에게 ‘소크라테스’가 되어 달라’고 주문한다. 교재를 통한 지식전달은 50% 이하다. 나머지는 아이들의 생각을 표현하게끔 도와주는 것이다.”

-‘와이즈위클리’의 내용이 다른 교재와 다른 점 있다면.

“역사논술, 교과서논술, 철학논술, 시사논술 등 다양한 분야를 소재로 한다. 예를 들어 역사논술의 이번 주 주제가 ‘고구려·백제의 건국’이라면 단순히 건국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다른 교재가 지식에 대한 평가를 하는 수준이라면 ‘와이즈위클리’는 ‘주몽은 왜 유리를 태자로 삼았을까’, ‘비류와 온조가 고구려를 떠나 백제를 건국한 것은 잘한 것일까’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을 묻는다.”

-다른 독서논술교재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기존 어린이 독서논술교재를 보면 값비싼 양장본 책이 많다. 그런 비용이 교육비에 다 녹아들어갔다. 신문은 여러 측면에서 원가절감이 가능하다. 기존 책을 교재로 활용하면 아무래도 교육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반면에 ‘와이즈위클리’는 신문을 제작할 때 먼저 ‘활동’을 생각하고 여기에 맞춰 콘텐츠를 만든다. 가격은 저렴한지만 콘텐츠는 우리가 ‘고가’다.”

황 대표는 ‘와이즈위클리’의 목표에 대해 “글이든 말이든 아이들이 어떠한 질문에도 주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진화한다.

“아이의 독서논술교육에 일주일에 한 시간만 투자해 보세요. 아이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프로야구 시즌이 시작되면서 네이버, 다음, 아프리카TV, CJ헬로비전 등이 PC와 모바일을 통한 생중계 경쟁에 돌입했다. 사진은 BJ들의 편파방송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프리카TV의 프로야구 생중계 코너. 사진제공 | 아프리카TV

야구중계 골라 보는 재미 쏠쏠

PC·모바일 통한 고화질 동시 중계 붐
미니 뷰어·멀티뷰 등 방송 차별화 눈길

되곤 시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스마트폰으로 프로야구 경기를 보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올해도 인터넷 업체들은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프로야구 생중계를 서비스한다. 경쟁이 심해진 만큼 편의성을 강화하고 특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크게 개선해 야구팬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올해는 네이버에 이어 다음도 프로야구 중계전에 ‘참전’했다. 다음은 최근 한국야구위원회(KBO)와 ‘2014 프로야구’ 중계권 계약을 체결했다. 프로야구 전 경기를 PC와 모바일을 통해 고화질 생중계한다.

놓친 장면을 바로 챙겨볼 수 있는 ‘미니 뷰어’, 이용자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중계창 사이즈 조절 기능, 최대 4개의 중계방송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멀티뷰’ 등 차별화된 시청 환경을 지원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인 아프리카TV도 모바일과 PC를 통해 프로야구를 생중계한다. 각 구단을 대표하는 방송진행자(BJ)들이 펼치는 팬파 중계와 ‘스막방’(스포츠 중계와 ‘막방’의 결합) 등 BJ들이 자유롭게 풀어내는 창작 중계방송을 통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경기 일정 및 결과확인, 다시보기, 하이라이트, 화제의 시구 등 다양한 주문형비디오(VOD)도 제공한다.

CJ헬로비전은 N스크린 서비스 ‘티빙’ 내에 ‘2014 프로야구 전용관’을 오픈하고 모든 경기를 PC와 모바일을 통해 고화질 생중계한다. 경기 일정과 경기 결과 확인도 가능하며, 경기 종료 후 ‘하이라이트’ 클립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PC를 이용할 경우 ‘멀티뷰’를 통해 4개 구장에서 펼쳐지는 경기를 한 화면에 모아 볼 수 있다. 모바일에선 경기 화면을 팝업창으로 전환해 카카오톡이나 웹서핑 등을 하면서도 시청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프로야구 개막에 맞춰 통합 스포츠 애플리케이션 ‘T스포츠’를 론칭했다. 특화 기능인 ‘My Sports’를 이용하면 좋아하는 구단을 선택해 경기일정과 최신뉴스, 최신 영상 등을 따로 모아서 즐길 수 있다.

김정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e76

2014년
신제품

음경 아래가 축축하고 고개속인 남자들이 찾는 속옷!
벌떡(핫나경) 팬티!
국내에서 개발한 기능성 원단으로 해외 수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제품입니다.

고기능성
섬유

벌떡팬티(기능성 신소재 원단)를 구입시 옥+자석링 4개를 무료 증정

32.5℃
옥+자석링

음경바로 교환바로 옥+자석링은 벌떡팬티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옥, 삼베, 바이오 세라믹의 조화로운 만남!
음경과 교환이 따로 분리되어 습하고 찜이 차는 것을 막아 주고 땀냄새 제거 등에 탁월한 도움을 주며 더 크고 더 단단하고 더 오랜시간 유지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 속옷으로 고개속인 남성들도 10대의 힘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벌떡팬티 한세트(3매) 구매시(사은품:벌떡팬티 1매와 옥+자석링 4개)

대리점 모집중!
해의 바이어 상담원형

제품문의 : 1588-4101 / 010-7102-7070 / 010-8968-5877

2014년
신제품

따뜻한 내 아내!
옹녀 핫나경!!
실물과 같은 여인!

밤이 외로운 남자를 위해!
내 여인을 만나면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이 시작된다.

1위 **차별화 된 1위 제품!**

2014년 최신 제품
동남아에 수출하기 위한 제품이며
폴리우레탄 재질로 무독성이고
견고하며 촉감부터 다릅니다.

원암선원, 독신자, 장애인, 출생지, 해외근로자
외로운 남자들에게 대환영 받고 있습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여인...
씨 본 뿐만 아녀 여인!

무독성!
국내유일의 신소재로
절대터지지 않습니다.

구입시 사은품 증정
대리점 모집중!
해의 바이어 상담원형

파격적인 가격! 내 여인 인형!
공정적으로 국내산이 아닐경우에는 100% 배상합니다.

제품문의 : 1577-4101 / 010-8952-4114 / 010-6380-5877

제형실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오소
19
미성년자
구독불가

인생을 두배로 즐겁게!
날 밤 새는 줄도 모르고 읽었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오소
①오피스텔 와이프 ②백인백색의 낙원 ③명기와 명도 전쟁
(주)글로벌 핫 출판사 / 저자 전준상(필명) 저 / 각권 15,000원(3권 45,000원)
*사은품으로①권을 더 선물해 드립니다.

1. 여자의 제일 좋은 운은 여러번의 절정을 몰아다주는 남자를 만나는 운이 제일 좋은 운이다.
2. 명기로 가는 길, 명도로 가는 길, 자금 오로지를 아시나요
3. 상코피 터지는 밤의 대통령도 사랑의 기술을 알아야 잘할 수 있다.
4. 여자는 남자하기가 따라 오조숙녀처럼 재테크도 하고 화랑기호 변할수도 있다.
5. 여자들의 질투로 한을 품으면 오늘밤에도 서리가 내리는 자궁전쟁으로 이어진다. (본문중에서)

제품문의 : 070-7809-5151 / 010-7102-7070